

인적·사회환경적·정책적 요인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안전 정책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미치는 요인 고찰

정 승 민*

주제어: 여성 1인가구, 안전 인식, 범죄 취약성, 범죄 예방, 안전 정책

[국문 요약]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가치 강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가치 변화로 인해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 고립과 범죄피해 위험 등의 문제를 동반하며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여성 1인가구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특히 주거침입, 절도, 성폭력 등 신체적 안전, 디지털 범죄까지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1인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식별하여 사회적·정책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정책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고찰하여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과 안전 인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경제적 안정성 등의 개인적 요인,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망, 미디어 노출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 이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개인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에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양태이다. 따라서 같은 여성 1인가구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안전의 의미나 치안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수립 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

* 백석문화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Professor, Baekseok Culture University), E-mail: jsm2133@bscu.ac.kr

목 차

I. 서론 II.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 III.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 현황 및 영향 요인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2022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일반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33.4%)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비율은 거의 같았으며, 여성 1인가구의 연령은 60세 이상 고령층(46.2%)의 비중이 높고, 남성 1인가구는 39세 이하(41.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1인가구의 연령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는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변화, 교육 및 경제적 독립, 인구학적 변화, 도시화 및 주거 환경의 변화, 기술 발달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가치가 강화되고,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연스럽게 1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대와 교류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장미혜 외, 2023). 여성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성 1인가구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범죄피해경험 뿐만 아니라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 사이버 괴롭힘과 프라이버시 침해, 주거환경의 안전성 문제, 사회적 고립감 및 정신건강 문제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증가하면서 치안서비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1인가구의 범죄피해실태 및 두려움에 관한 연구,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예방책에 관한 연구 등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여성 1인가구 안전 정책은 물리적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오늘날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진보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비율에 대응하고,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범죄,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협을 식별하여 사회적·정책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연구는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이나 안전 인식은 영향 요인들 각각의 영향보다는 개인·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정책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고찰하여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여성 1인가구의 맞춤형 안전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II.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

여성 1인가구는 여성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가구 형태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거비용,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때때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다. 여성 1인가구가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는 결국 범죄 취약의 문제까지 가져오면서 안전 인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 1인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른 범죄발생건수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Cohen & Felson(1979)의 주장처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범죄 발생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범죄취약지역의 특성 중 하나로 1인가구 비중이 높음을 주장하였다(최상희 외, 2013; 신상영·조권준, 2014).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혼자 사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뿐만 아니라 안전 불안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진희 외, 2017). 또한 1인가구가 1% 증가할 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은 0.81%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장진희, 2018)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침입, 도난,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을 더욱 크게 느끼고, 야간에 공공장소나 집 안에서의 안전에 더욱 취약함을 느끼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장미혜 외, 2022).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 스토킹,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이 범죄두려움이나 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1인가구와 주택유형별 범죄불안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의 범죄불안감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황성은 등, 2013). 대학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범죄불안감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간보다는 심야에 범죄불안감이 높았고, 집주변의 취약한 환경과 미흡한 방범시설 등이 범죄불안감을 가중시켰다(안혜진·강석진, 2016).

이와 같이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취약하거나 안전에 민감한 이유는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인식되면서 쉬운 표적으로 보는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여성 1인가구는 여성에 대한 성별 기반 폭력의 위협에 더욱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두려움이 큰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둘째, 주거환경은 사람들의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많아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주거를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경제 사정에 맞추다 보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나 보안 시설이 불충분한 주거환경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협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은 보안 시스템이나 다른 안전 조치를 갖추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가져 온다. 셋째,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또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는 위협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안전 관련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적일 수 있어 범죄 예방 교육이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은 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불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여성 1인가구는 범죄에 더욱 취약하고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면서 이들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범죄학, 사회학, 도시계획,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범죄학적 접근에서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은 주거 환경의 물리적 조건,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특성, 일상 활동 패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요인을 파악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즉 부족한 조명, 인적이 드문 골목, 미비한 보안시설의 건물, 감시카메라의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진 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환경범죄학적 접근법으로 범죄 영향 요인을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들이 속한 환경의 특성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으로는 첫째,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일상 활동 중 발생하는 특정 상황들이 범죄의 기회를 만드는데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감시의 부재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

는 이론이다(Cohen & Felson, 1979). 여성 1인가구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특히 야간에 집이나 외부에서 더 취약할 수 있어 안전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범행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장치, 감시의 부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부족한 환경에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더욱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 감시의 강화를 위해 야간 순찰 강화, CCTV 확대 설치 및 분석, 112 비상벨 활성화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되었고(송영대, 2019: 11-13), 범죄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어떤 전략적인 CPTED를 구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조제성·이상훈, 2021: 158).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조명, 시야 확보, 접근 통제, 자연적 감시 등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 주변에 적절한 조명 설치, 출입문 강화, CCTV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설계는 범죄자가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무질서한 환경이 지역사회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범죄자에게 보내어 범죄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1인가구가 사는 지역이 방치된 건물, 쓰레기가 많은 거리, 낡아서 많은 벽, 취객들이 자주 발견되는 거리, 낯선 사람들 간의 싸움 등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상태에 있게 되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성에 대해 사회학, 성별 연구 등에서의 이론을 통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사회결속이론(Social Cohesion Theory)은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연결망, 신뢰, 상호작용 등이 개인과 커뮤니티(community)의 안전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부족할 경우 안전감의 저하로 범죄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론인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도 언급된다. 성별에 따른 공간적 경험과 힘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으로(Burnett, 1973), 공간과 장소가 성별 정체성, 불평등, 권력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 공간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어떻게 지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McDowell(1983)은 도시 공간 연구가 성차(gender difference)를 고려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하며 주거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안전한 주거환경의 중요성과 여성의 공간적 경험을 조명하고, 나아가 도시계획, 환경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 공간의 성별적 구성과 이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데까지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론들은 여성 1인가구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이 이론들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여성 1인가구 안전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III.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 현황 및 영향 요인

1.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 현황 분석

여성의 1인가구의 안전 취약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안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범죄노출 위험도에 더욱 민감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범죄발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여성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 1인가구가 범죄발생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준휘 외, 2017: 170-172; 장재원·이지원, 2019: 85-86). 2022년 1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구역별 여성 1인가구 분포 및 취약범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유형과는 상관없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은 비밀집지역에 비해 데이트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등 모든 여성폭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 CPO) 경찰을 대상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피해실태 등에 대한 주요 의견을 수집한 결과에서도 CPO들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실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가장 빈번하게 신고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은 연령대, 생활패턴 등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1인가구는 대학 근처에 비교적 저렴한 기타 주택에, 30~59세는 임대료가 비싼 아파트 혹은 기타 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60세 이상은 지하철 및 대학과 거리가 멀고 상업시설이 적은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세대별 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에서의 차이점을 통해 이들의 안전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 여성 1인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으로 성희롱·성폭행(45.9%), 주거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장년층 여성 1인가구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비교적 안전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거주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주지 주변 지역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위급상황 신고 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반면 장년층, 노년층 여

성 1인가구는 관계적 측면의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안전에 대한 요구보다는 편의성이나 연락 등 복지적 차원의 정책 수요가 많았다. 이와 같이 여성 1인가구가 세대별로 다른 측면의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6138>).

2.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 영향 요인

1) 개인적 요인과 안전 인식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1인가구가 동질의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개인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여건이 각기 다른 이질적 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서로 다른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장진희, 2022: 74). 특히 여성 1인가구는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연령, 직업 안정성, 경제적 수준 등 개인적 특징에 따라 안전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요구되는 안전 정책 또한 다르게 요구될 것이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남성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의 비교 연구를 통해 특징을 밝혀냈다. 조현성·김상학(2018)의 연구와 하치은·김지현·김민지(2017)의 연구에서 남성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이 더 높은 경향에 대해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paradox)를 언급하며 이를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과 모성 이데올로기, 범죄두려움의 사회적 전염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즉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성별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 및 기대, 취약성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범죄두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자기보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의 사회문제, 특히 안전에 관한 요인 분석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연령을 언급할 수 있다. 연령과 안전 인식의 관계에서 여성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심혜인(2021)은 여성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하며, 특히 성폭행과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과 중년 여성 1인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통계청, 2020: 32),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에서 그 두려움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박준휘·유진·한민경·최지선·윤상연, 2017: 4, 강지현, 2016; 이수영·임미화, 2020: 48, 오수진·이세롬·김하은·한

민경, 2023: 30-31). 김세령·박정선(202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경제적 안정성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소득이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났다. 민휘경·김혜진(202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여성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며,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활발한 일상 활동을 하고 자주 집을 비우기 때문에 물리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Keane(199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미혼여성이 집 밖이나 집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더 큰 범죄두려움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낮은 소득이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 인식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단순하지 않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조절될 수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서 1인가구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2016년 54%, 2017년 52.1%, 2018년 52.7%, 중위 소득 50% 이하인 상대 빈곤율이 15.3%였는데, 1인가구만 따져보면 이 비율이 47.2%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1인가구 빈곤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완·한수진·이주미, 2022: 52-55). 이와 같이 여성 1인가구의 빈곤율은 안전 인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 1인가구는 낮은 소득,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빈곤율이 높아지고, 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안전장치나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추는데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1인가구의 개인적 요인과 안전 인식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연령 및 경제적 안정성 등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의 고유 효과를 넘어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1인가구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환경적 요인과 안전 인식

여성 1인가구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망, 미디어 노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선택은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거 선택은 경제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불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안전한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Nakano, 2013; Izuharah, 2015; Kopanidis et al., 2017),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

는 과정에서 여성 1인가구의 범죄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비밀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1인가구 비율의 독립적인 효과보다는 1인가구 지역의 특성, 예를 들면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범죄경력자의 비율, 소형주택 비율, 숙박업소 비율 등이 강력범죄발생률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박준휘 외, 2017). 따라서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장미혜 외, 2023: 93-99).

다음으로 친구, 가족, 이웃 등과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상황은 안전감을 느끼는 데 효과적인 요인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망이 강한 지역사회는 안전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동의 안전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도 기여한다. 또한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은 안전함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1인가구 중 74.8%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체 인구(79.8%)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의 57.5%는 우리 사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응답(58.1%)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통계청, 2023). 이와 더불어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은 1인가구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면서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리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은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범죄보도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실제 범죄발생률과 관계 없이 범죄두려움은 증폭될 수 있다. 뉴스, 영화, 드라마 등에서 범죄나 사고가 과도하게 보도되거나 드라마화될 경우 여성 1인가구 시청자들은 실제보다 그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개인의 안전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 또한 더 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반대로 미디어가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범죄 예방정보를 제공하여 여성 1인가구가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제 범죄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미디어가 범죄문제를 공론화하면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여성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이수현, 2021: 89, 92). 이와 같이 미디어의 영향은 내용, 맥락, 대중의 접근 방식 및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 정책에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여성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미디어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여 여성 1인가구 안전 인식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정책적 요인과 안전 인식

현재 정부는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톱킹 및 가정폭력 방지 법률 강화, 여성보호를 위한 긴급대응시스템 등 법적 보호 및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개선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 1인가구의 안전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 1인가구들의 안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법적 보호 및 제도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 대상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며, 필요 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들이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그러나 안전뿐만 아니라 주거 및 복지정책, 사회보장 혜택 분야에 있어서 여성 1인가구에게 불리한 법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등에서도 남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장민선, 2015: 28-29).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성 1인가구의 법적 보호 및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된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개선 사업은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과 보안 시설 확충 등은 여성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주거지 선택 시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 공간을 찾고자 한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예방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조명 개선과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가 여성 1인가구의 안전감과 실제 범죄율을 현저히 낮추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적 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범죄 예방뿐만 아

니라 그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정책은 여성들의 사회적 연결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여성들은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적 연결성과 지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넷째, 안전 앱 및 디지털 도구의 사용 등 기술적 지원은 여성들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안전 정보 제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들이 범죄 예방 정보와 안전 수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CCTV의 설치만으로는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하희송·박현실, 2020). 이후 범죄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PTED가 시행되었고,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안심 보안등, 안심택배함, 안심앱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되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공적 공간인 골목길 중심의 지원이 많고, 사적 공간에서는 대부분 방법시설 보완 대책이 주를 이루어 CPTED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주택’ 또한 범죄 안전을 위한 건축공간 지원사업으로 계획 단계부터 특정 대상의 범죄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수가 너무 적어 그 효과를 확인하기는 부족하다(서민진·임보영·강석진, 2023: 154). 이와 같이 현행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확보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들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방법용 CCTV의 증설, 지역사회 내 일괄적인 CPTED 방안 등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앞서 여성 1인가구의 개인적·사회환경적·정책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의 정도보다는 범죄두려움에 더욱 민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여성 안심구역, 안심귀갓길 등 다양한 사업을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것은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원유진·조택연, 2020: 209).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는 개인적·사회환경적·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여 정책 수립에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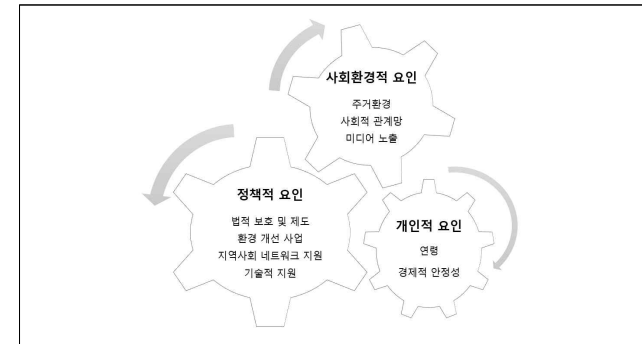
첫째, 현행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정책의 한계는 대부분 개인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에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양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괄적인 정책

은 같은 여성 1인가구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안전의 의미나 치안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세대별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가 다르게 작용한다. 주로 20-30대 젊은층 여성의 경우 테이트폭력, 스토킹, 성폭력범죄 등 여성 취약범죄에 대한 피해 및 두려움이 높는데 비해,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대별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별 요구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노성훈 외, 2022: 142-143; 조제성·이상훈, 2021: 157-158).

둘째, 현행 여성 1인가구 안전 정책들을 마련할 시 안전한 주거공간,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거환경, 상업지역 여부, 교통수단의 용이성 등의 지역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 사회적 지지 등에 따라 범죄피해율이 다르고,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달라짐을 고려하여 안전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여성 1인가구의 지역특성별 맞춤형 정책은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반영하게 되며, 이는 객관적·주관적 차원에서 여성 1인가구의 치안에 대한 안전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노성훈 외, 2022: 107).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주거공간을 제안한 연구(원유진·조택연, 2020: 213)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대해 불안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요소로 프라이버시와 안전, 개인과 커뮤니티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도출하였다. 즉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내에서 유대감과 안정감, 귀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범죄 예방책으로 제시하였다. 단순히 주거의 목적만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의 결합으로 여성들의 공공감성을 이끌어내는 공공공간이 결합된 주거형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정책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소통과 유대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소외가 안전 인식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에서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 지원, 1인가구를 위한 여가문화 확산,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공동체주택 지원,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운영 등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안전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해 CCTV, 무인택배함 등의 물리적 요소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여성 1인가구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적·사회환경적·정책적 요인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1년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경찰의 주된 사무인 범죄 예방에 더욱 주력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순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진단활동 등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부서 간 업무구분 없이 지역 경찰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서와 자자체, 경찰관서와 민간보안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우선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지원이나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적 영향

참 고 문 헌

- 김원중, 2020, “1인가구와 범죄”, 법경제학연구, 17(1): 137-160, 한국법경제학회.
- 김은하, 2019, “여성가구주의 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 319-328,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김태완·한수진·이주미, 2022, 202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성훈·최재운·차유정·장광호·박석만·우신철, 2022,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별 범죄 취약 요인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 박준휘·김한균·유진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상·김도형·박준승·조윤오·박형아, 201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서미정, 2022, “1인가구의 실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세대별·성별 맞춤형 정책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73: 25-46, 한국보안관리학회.
- 심혜인, 2021, “세대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두려움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7(3): 61-78, 한국범죄심리학회.
- 안혜진·강석진, 2016, “지방도시 대학가 1인 가구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회, 7(2): 8-33, 한국셉테드학회.
- 원유진·조택연, 2020,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복합주거공간 연구: 여성 공유주택에서의 공공감성과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5): 201-214,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이수현, 2021,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의 범죄안전감 향상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미혜·박상민·홍미리·정다운·정지연·홍세은, 2023,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Ⅱ):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미혜·정연주·박상민·홍세은·정다운·정지연, 2022,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민선, 2015,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7(2): 1-32, 이화여자대학 젠더법학연구소.
- 장재원·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장재원·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5-86.

- 장진희, 2018, “1인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9(4): 87-110, 이화여자대학 젠더법학연구소.
- 장진희, 20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일상생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 관계망과 주거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71-113, 이화여자대학 젠더법학연구소.
- 조선미·임연규, 2024, 세대별로 본 홀로 라이프: 생활시간조사와 여성 1인 가구의 삶, KWDI 성인지 통계 리포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제정·이상훈, 2021,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치경찰 시행관련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4): 153-171, 한국치안행정학회.
- 통계청,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 12. 12. 보도자료.
- 하희송·박한실, 2020,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54(2): 379-423.
- 황성은·강부성·박지연, 2013, “주택유형별 1인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4): 9-17, 한국주거학회.
- 태일리팜, “여성 1인가구 358만, 밀집지역서 여성폭력범죄 발생건수 多”, 2023년 1월 19일 기사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6138>
- Burnett, P., 1973, “Social change, the status of women and models of city form and development”, *Antipode*, 5: 57-61.
- McDowell, L.,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 59 - 7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afety awareness of Single-Female Households

Jeong, Seung-Min

[Abstract]

As the number of single-female households increases, their safe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The number of single-female households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social values, such as strengthening the value of individual freedom and the pursuit of self-actual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marriage. However, this increasing trend is accompanied by problems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risk of crime, and their safety is also threatened. Concerns about this are growing. Single-female households are easily targets of crime, and are especially exposed to physical safety threats such as home invasions, theft, and sexual violence. Today, digital crime is also threatening their safety.

Continuous research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various risks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female households may face and to promote social and policy improvement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need for effective policies for the safety of single-female households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female households and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social, and policy factors that affect their safety. .

I want to see that.

In exist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vulnerability and safety awareness of single-female households, personal factors such as age, economic stability, residential environment, social networks, and media exposure have been found to b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afety perception of single-female households. Personal furniture. Social-environmental factors and various policy factors were presented.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lements has a greater influence than the influence of each of these elements, and a safety policy that takes this into account must be prepared. Safety policies for

single-female households that are implemented uniformly without comprehensive analysis are bound to have limitations. In most cases, facilities for crime prevention are provided in residential areas without considering individual 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recognizing that the meaning of safety and security needs may be different even for the same single-female household, we must examine the interaction of personal, social environment, and policy factors that influence when establishing safety policies for single-female households. The safety of single-female households was also considered. We must consider the impact on operations and propose a customized safety policy accordingly.

Key Words: single-female households, safety awareness, crime vulnerability, crime prevention, safety policy

접수일 (2024년 6월 12일), 심사일 (2024년 6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4년 6월 29일)